

6/11(토) 말라기 묵상 2

말라기 1:6-14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누구이신지에 대해 여러가지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레 그 분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비록 어릴 때는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버지의 역할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장한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엢 6:1-2,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이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분의 종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주인으로서 우리를 마구 부려먹거나 천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분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주님께 말대꾸하며 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첫째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바쳤습니다(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더러운 떡은 성소 안에 드리는 진설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떡은 제단에서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은 희생제물로서의 짐승의 재물을 말합니다. 더러운 떡이란? 8절에 기록된 대로 ‘흠있는 짐승’ 곧 저는 것, 병든 것 등등을 뜻합니다. 이는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서 재물로 금지하셨던 것입니다(레 22:21,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값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하지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이런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며 반문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6절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인간 지도자인 총독들도 그런 재물을 받으면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죄는 한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가 차서 그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엮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해법

이스라엘은 불과 100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 당하고 이방 땅에 포로가 되었던 상태에서 다시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짓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실망을 자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 된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무리 혼내고, 달래 보고, 또 험박까지 해봐도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혼날 짓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롬 3:10-12,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된다는 사실을 끝내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매를 맞고, 벌을 받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며 포로로 잡혀 갔다가 돌아 와도 안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완전하신 신이자 인간이신 흠 없는 재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만이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제물로서 합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이 땅에서 온전히 지키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다짐과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먼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께 우리의 요구와 바램만 간구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대할 때 우리를 존중히 대하시고 또 우리가 주를 위선적으로 대할 때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것입니다(삼상 2:30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전세계를 위한 기도:** 중남미의 국가들의 독재, 부패, 경제 위기 등으로 자국을 떠나 북미로 북상하고 있는 수많은 케러밴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가정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4. **선교 기관을 위한 기도:** 100주년을 맞은 OMSC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향후 50, 100년도 계속해서 주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관이 되게 하소서.